대불련 "대학생 포교, 영역 확장 필요"

조계종 포교원 주최 12월 5일 포교종책연찬회서

예비대학생 · 군장병 포교영역 확대
새 청년신행 문화 맞춰 변화 시사
기다리는 포교서 찾아가는 포교로
종단 차원 법사교육 등 지원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년 포교를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활동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2월 5일 '대불련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서는 대불련의 영역을 재조정하고, 청년 포교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불련은 1963년 삼군사관학교를 포함한 서울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해 만든 연합회다. 현재 18개 지부에 127개 지회가 등록되어 있다. 대불련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190여개 지회를 자랑할 정도로 청년 포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조용석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달라진 청년층의 신행문화에 맞춰 포교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도위원장은 "과거에는 포교대상과 영역을 지회, 대학교 불교 동아리로 국한했다면 최근에는 예비대학생, 20대 또래청년, 복학하게 되는 군종병과 군장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전처럼 동아리에 오게만 해서는 청년포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지도위원장은 이를 위해 청년 신행거점을 위한 지역사찰과의 연계, 파라미타, 군종교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한 종책연찬회서는 대학생 포교의 영역확장과 포교기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조 지도위원장은 "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없는 개인법우들과 동아리 활동을 원치 않는 청년불자들을 위해 거점사찰을 연계해주고, 예비대학생인 고등학생의 신행을 담당하는 파라미타, 군장병의 신행을 담당하는 군종교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신행의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단 차원의 지도법사 스님들의 역량강화와 확충,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사무국 인력 확충에 대한 후원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이날 연찬회에서는 기독교계의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같이 대학생 포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인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불련 총동문회 부설 사단법인 '대불'의 최승태 대학전법지원단장은 "대불련은 청년포교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체"라며 "대불련과 함께 동문조직, 종단을 아우르는 지도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포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범종단 차원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원단장은 "CCC의 경우 전국 253개 대학에 CCC선배들로 구성된 1500명의 간사단을 파송, 캠퍼스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문조직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위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문지영 대불련 제주지부장, 정세환 대불련 충북지부장, 도운 스님과 효록 스님 등 관계자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달라이라마 헌정할 '지구헌장' 공개된다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단장 이원영)은 12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서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 및 후반기 생명로드 일정 발표행사'를 개최한다.

이원영 단장은 12월 6일 기자들과 만나 행사와 관련해 "2017년 5월 부처님오신날 서울을 출발했던 생명로드 순례단이 10개국 4천 여km를 걷다가 인도서 중단된 바 있다. 올해 동지에 재개될 후반기 순례에 앞서 달라이라마에게 헌정할 지구헌장을 12월 13일 공개한다"고 말했다.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은 2016년 여름부터 2년여 동안 순례단이 준비해왔다. 순례단은 상반기 순례때 멈춘 지점부터 약 950km를 걸어 다람살라에 도착한 후, 달라이 라마를 친견해 서울안을 헌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안에는 △생명존엄 △생명 연계 △생명공동체 △인류의 책임 △핵폐기 △생명침해 중단 △실천 의무 등 7가지 조문과 종교인을 향한 제언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불교계가 앞장서 일본 사죄 받겠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 故김순옥 할머니 조문


원행 스님(나눔의집 원장)이 고인을 향해 조의를 표하는 모습. 사진제공=광주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별세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5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서 故김순옥 할머니를 조문, "불교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서 유족들에게 "일본의 공식사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고인이 머무르던 나눔의집 원장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장례식장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고령의 생존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부탁했다.

스님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피해할머니를 위한 집중 돌봄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인권교육을 위한 추모사업과 기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故김순옥 할머니는 향년 97세로 12월 5일 오전 건강 악화로 타계했다. 고인은 2005년 나눔의집에 입소한 이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증언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김지원 기자

佛국가서 이주 급증… "佛다문화 복지를"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 불교사회복지대회 포럼 발표

축적된 국제구호개발사업 경험
전국 사찰 네트워크 등 활용해
정책 사각지대 완화 역할 기대



불교문화에 친숙한 국가 출신의 이주자 유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교계가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이 12월 6일 개최한 제2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포럼서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불교사회복지 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불교복지가 다문화 영역에서 담당해야할 역할을 제언했다.

조 교수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불교 문화가 익숙한 곳에서 이주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불교복지는 급변하는 이주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 영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내년부터 추가 수탁운영 예정인 2곳을 포함해도 조계종복지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체 217개 중 6개로 2.8%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사업의 위탁 · 운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불교와 관련성이 높은 국가 출신이 포함된 이주자집단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계종이 추진해온 몽골드림센터, 라오스드림센터유치원 등 다양한 국제구호개발 · 해외긴급재난구호 사업 경험 등을 재단의 강점으로 꼽았다.

결혼이민여성에만 집중된 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근 급증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제사업 운영 노하우가 도움이 된다는 게 조 교수 설명이다.

또한 "다문화 영역의 사회복지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역적 특색을 배제한 사업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복지재단은 전국 25개의 교구본사를 아우르는 장점을 살려 이주자들이 모국과의 친근함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다문화 불교복지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방향 및 정책의 제 설정 △다문화 관련 기관 확대 △대상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전담 불교전문인력 양성 △다문화 사업 운영 재원 마련 △다문화 관련 연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편 홍달아기 원광대 가정아동복지학과 교수(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희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실무자 대표로 토론에 참여했다.

홍 교수와 김 센터장은 앞서 진행된 발제 내용과 관련 "공공 영역인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종교적인 접근의 한계가 있으니 장기 정착화를 대비한 다문화 복지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 재추대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사진)이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19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을 지낸 강 의원은 20대 국회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후 2년 만에 다시 회장을 맡게 됐다.

강 회장은 12월 6일 국회서 열린 정각회 정기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으로 추대됐다. 강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에 이어 다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20대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앞장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불교 현안들이 있다. 남북불교 교류 차원에서 진행될 북한사찰 순례, 사찰입장료 문제 해결, 템플스테이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임원에는 주호영 전임회장은 명예회장, 고문에 정갑윤, 부회장에 이원욱, 간사장에 이헌승, 간사에 오영훈 · 김순례 · 신용현, 감사는 신경민 · 이은재 의원이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